



추모예식 순서지



추모예식의 의미

기독교에서는 제사의 형식을 대신하여 추모예식을 통해 고인을 추모하고 생전의 은덕과 뜻을 기립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가족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믿음으로 하나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추모예식의 준비

예배상 위에 고인의 사진을 올려놓고 촛불이나 꽃으로 장식합니다.
고인의 사진 앞에는 성경을 놓습니다. (고인에게서 사용하신 성경이면 더 좋습니다.)
가족 대표 한 사람을 정하여 아래 예식 순서에 따라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한밭제일장로교회
HANBATJEIL PRESBYTERIAN CHURCH

추 모 예 식 순 서

〈가족 중 한 사람이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이 시간 고(故) 000 (아버지, 어머니, 장로, 권사, 집사 등)의 00주기 추모일을 맞이하여, 추모예식을 시작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다같이

1.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오리
2. 하늘 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뵈을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3.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뵈오리
4.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 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 버리리

(후렴)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뵈오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대표기도

말은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믿음을 통하여 대대손손 이어진 것처럼 우리 가정 또한 믿음의 명문 가문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 되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시편 25편 12-15절

말은이

12.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13.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14. 여호와와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15.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추 모 사

말은이

〈고인의 유언, 유훈, 행적을 회고하면서 서로 교훈을 나눕니다.〉

설 교

복받는 가문이 되려면

말은이

〈후면 설교문 참조〉

찬 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다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민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는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의 교제를 가집니다.〉

설교문 <복 받는 가문이 되려면>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 일평생 자취를 남기고 갑니다. 어떤 이는 죄만 짓다가 감으로 부끄러운 자취를 남기고, 어떤 이는 자랑스러운 자취를 남기고 갑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쓰임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때 노아의 가정은 심판의 날에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가정, 다윗의 가정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가정과 제사장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실하고 그 가정의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든 어떤 가정이든지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고 우리 가정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담대히 외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삶을 어떤 원수도, 어떤 고난도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택할 길을 가르치사 늘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요셉 또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에도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 하리오." 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인생의 길이 막혀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 주사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는 승리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또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되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시편 9편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인정하시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써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영혼이 평안하고, 자손이 잘되고, 악과 시험의 그늘에서 벗어나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꼭 되도록 합시다.